

## 이기영의 '여성해방' 소설 연구

이미림

### 국문초록

농민문학, 프로문학뿐만 아니라 민족문학의 범주로서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기영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유교 이념의 봉건가정에서 성장하여 작품 속에 혼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묘사된 여성상에서는 11살의 모친 사별과 14살의 조혼경험의 결정적 인상에 기인하는 투사적 계급형 인물이 이상화되거나 관념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작가가 고통받는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만 주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내들은 구여성이든 신여성이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속물주의자, 처세주의자, 성욕 물질욕이 강한 현실주의자로 관찰되며 여성의 용모는 아름답고 신비화된 성적 대상으로 그려진다. 각성의 계기로 본 남녀 성차에서는 여성의 주체획득 과정이 남성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주시한 부분이다. 문제적 개인이 남성인 경우 자발적인 향상심이나 내적 고뇌가 계기가 되지만 여성들은 대부분 남성과의 실현 이후에 나타나며 의식화 과정에서도 남성 지식인이 개입되어 있고 남성이 귀농, 귀향 후의 활약이 돋보이는 비해 여성들은 고향으로 가지 않고 있어 공사이분법의 경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정절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젠더, 민족, 계급의 삼중 억압 속에 식민지 한국여성들의 열악한 위치가 매매혼, 심청 모티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영의 '여성해방' 소설에서

꾸준히 천착해온 여성문제는 유의미하며 이러한 난제들이 현재 남성작가에게서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문제로 남아있다.

## 1. 사회주의 여성해방론과 가부장제 유교이념

최근의 문학연구는 근대/전근대, 서양/동양, 문명/야만, 문화/자연, 남성/여성, 식민자/피식민자, 고급문화/저급문화로 이분화되었던 이항 대립을 해체시키면서 전복과 탈주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주변적 위치에서 열등하게 평가받고 있었던 문화의 타자인 광인, 어린이, 피식민자, 여성의 위치를 재조명하면서 정전 다시 읽기를 시도하고 있다. 본고는 농민문학, 프로문학뿐만 아니라 민족문학의 범주로서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기영 소설을 재조명함으로써 남성작가의 페미니즘과 여성의식의 허와 실을 고구<sup>1)</sup>하고자 한다.

1920년대 중반 문단에 데뷔하여 사회주의 사상에 동조했던 이기영의 문학은 구한말, 개화기, 카프기, 전형기, 암흑기를 거쳐 한국 리얼리즘 소설의 대두, 형성, 심화, 확대, 정착 등 발전과정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소설은 남성의 위선과 조선의 가부장제<sup>2)</sup>에 대한 모순을 밝히고 있지만 삶의

1) 이기영에 대한 석, 박사 학위논문은 수십 여 편에 이르며 여성의식을 구체적으로 다룬 글로는 변정화의 「이기영 작품에 나타난 여성현실과 그 전개방식」, 『아세아여성연구』 제29집 (숙명여대, 1990), 「이기영의 작품과 여성해방의 문제」, 『어문논집』 제1집 (숙명여대, 1991), 이선옥의 「일제하 여성문제 소설의 한 양상」, 『월북작가에 대한 재인식』 (깊은샘, 1995), 「이기영 소설의 여성의식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5) 등이 있다.

2) 가부장제(patriarchy)는 '물질적 기반을 갖춘 남성 사이의 계층제도적 관계와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려는 남성들 사이의 결론이 존재하는 일련의 사회관계' (하트만),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권력관계의 총체' (소폴로프), '성에 기초하여 남성 우위의 형태로 권력이 배분되고 나아가 역할이 고정적으로 배분된 관계와 규범의 총체' (瀬田山角), '여성을 남성에게

토대였던 가부장제 유교 이념과 커서 받아들인 사회주의 사이에서 혼란을 빚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모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시아에서 '문명의 우두머리가 된' 일본은 열등한 아시아(劣亞)라는 의식에 괴로워하면서 동시에 아시아를 깔보는(蔑亞) 우월감을 팽창시켰으며 남성=식민자=제국, 여성=피식민자=종속국<sup>3)</sup>으로 식민지 조선을 바라보았다. 예컨대 조선은 '득의양양하게 맘껏 욕구를 채우고도 지칠 줄 모르는 지나(支那) 남자'에게도 아양을 떠는 성적으로 방종한 <여자>로 비유<sup>4)</sup>되었다. 수탈, 억압, 저항, 개발, 성장, 불균등이 교차하면서 근대에 적응<sup>5)</sup>하며 왜곡되고 굴절된 과정 속에 한국 근대화는 이뤄졌고 반봉건반제라는 기치아래 '비순응적인 인식 태도'<sup>6)</sup>를 보여왔다. 일제 식민지 체제라는 독특한 상황하에 검열과 금지라는 지배 담론에 저항하는 대항 담론으로 프로문학은 시대 정신을 지니며 카프중진작가였던 이기영에 대한 업적은 고평되고 있다.

이기영은 유교적 교양의 봉건집안에서 성장하였으며 11살에 어머니를 잃었는데 이 사건은 문학<sup>7)</sup>을 하게 된 동기가 된다. 할머니의 환갑을 맞아 14살에 한 조혼은 이상적이거나 관념화된 여성을 창조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조명희와의 만남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1925년 카프에 가맹하는 계기가 된다. 1927년 카프 재편성과 맑스주의적 신강령 채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sup>8)</sup>을 갖게 된다. 이데올로기와 리얼리즘, 세계

종속시키는 시스템(텔피)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성지배'에 '물질적 기초(material basis)'가 있다는 인식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가부장제'라는 개념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우에노 치즈코·이승희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녹두, 1994) pp.64~65, p.85.

3) 강상중·이정덕외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이산, 1997) p.90.

4) 福澤諭吉, 『東洋の政策果して如何せん』福澤諭吉選集 第7卷 p.136.

5) 박섭, 『식민지의 경제변동: 한국과 인도』(문학과지성사, 2001), p.18.

6)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 p.184.

7)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차별과 억압구조를 해명하는 데 계급지배라는 변수를 도입하여 계급지배가 철폐되면 여성은 자동적으로 해방된다고 믿었으나 여성의 입장에서서는 '배반당한 혁명'이었다. -우에노 치즈코, op.cit., p.14.

관과 창작기술의 병립<sup>8)</sup>이라는 창작방법론에 입각한 그의 소설은 카프문학이 갖는 도식성과 선전페라투의 한계에서 벗어남으로써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소설의 모델이 되고 있다.

작가의 사회주의 사상의 선택과 병행하여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여성해방론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무산여성의 해방으로서의 계급해방을 내세운 여성동우회 이외에도 여성 단체의 숫자가 60여 개에 이르고 있어 당시의 여성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1927년 5월 27일 사회파, 민족주의파를 초월한 근우회가 결성되면서부터 여성해방, 민족해방, 계급해방 이론의 유기적 결합이 시도되었으며 계급적 민족해방에서 여성해방의 차원과 여권확장을 목표로 하게 된다. 이기영은 근우회의 기관지 <근우> 창간호에 「부인의 문학적 지위」를 발표하여 여성해방을 지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이기영은 남성들의 여자에 대한 이중성과 폭력성을 비판하고 산아와 육아에의 부담 때문에 가정 속에 갇히어 오직 남자의 성욕만족의 기구가 되고 노예가 되어 남자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분석한다. ‘물건’으로 취급되어 남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소유물’에 불과한 부인의 지위는 봉건사상의 잔재이며 문학에 있어서 남녀 양성을 대등하게 취급한 문학이 프로문학임을 주장하고 있고 부인과 노동자는 공통한 운명을 가져 노동계급이 해방되지 않고서는 부인해방도 바랄 수 없으므로 프로문학이 여성문학임을 말한다. 그래서 남존여비의 봉건사상과 싸우고 여자를 가정지옥과 문맹과 남자에게 예속시킨 현대 사회제도에서 해방하려는 문예투쟁을 주장하고 있다.

작가의 여성의식은 마르크시즘을 받아들였던 그의 사상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어 ‘프롤레타리아 고유의 종속’은 있어도 ‘여성 고유의 종속’은 없었던 마르크스의 한계를 표출한다. 즉 마르크시즘에 기반한 이기영의 ‘여성해방’ 소설은 전유와 착취관계의 계급해방에는 성공하고 있으나 착취자나

8) 이기영, 「창작방법문제에 관하여」(동아일보, 1934.5.30~6.4)

9) 우에노 치즈코, op.cit., p.27.

피착취자의 성(gender)을 언급하지 않았고 노동과 자본간의 갈등이 다만 무성적(sex-blind) 범주 내에서 작용<sup>10)</sup>하고 있을 뿐이다. 본고는 반봉건성과 탈식민주의(반제국주의)<sup>11)</sup>를 기반으로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여성해방의식을 지닌 이기영의 소설을 페미니즘 관점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2. 남성중심적 시각의 여성상 묘사

이기영 문학의 관념적이고 이상화된 여성상 묘사는 여러 평자<sup>12)</sup>와 더불어 자신의 고백<sup>13)</sup>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어머니와의 이른 사별과 서모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 작가는 조혼에의 불쾌한 기억, 애정 없는 결혼생활과 카프의 이데올로기 주입으로 관념적이고 부정적인 여성상을 표출하게 된다.

남성중심 문학에서는 여성을 처녀/마녀, 성녀/창녀, 여신/암캐 등으로 이원화시켜 남성에게 순종, 헌신하는 여성으로 가부장제에 기여하는 인물을 천사형으로 긍정하고 성취욕, 몰욕 등 자기욕망이 강하고 남성사회를 위협하는 여성을 마녀형으로 부정<sup>14)</sup>하고 있다. 수동적-공격적, 직관적-논리적, 소유욕이 강한-헌신적인, 물질적-정신적, 냉담한-욕욕적과 같은 근거없는

10) 미셸 바렛의 · 신현옥외 편역,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여성사, 1995) p.23.

11) 식민주의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대표자들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 법률 체계, 정부, 다른 제도적 구조들을 부과하거나 설치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제국주의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서 강제적인 무역 관계, 외래 종교의 강요, 법률 체계나 정부에 대한 외국의 간섭 등은 있으나 대규모의 계획적인 시민의 이주는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착취관계를 지칭한다. 그러나 제국주의적 관계와 식민주의적 관계에는 여러 변종이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 사라 밀즈 · 김부용역, 『담론』(인간사랑, 2001) p.198

12) 「고향」의 '갑숙'의 성격에 대해서는 김남천, 민병휘, **안함광**에 의해 평가된 바 있다.

13) 필자는 여성을 많이 써보는 체 했지만 현실의 여자는 잘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 이기영, 「부인의 문학적 지위」(근우, 1929.5)

14) 한국여성연구회 편역, 『여성해방문학의 논리』(창작과비평사, 1990) p.77.

대립쌍들은 남성의 타자적 존재로서 여성을 불리하게 만들었고, 여자를 초자연적이거나 유아적으로 묘사하여 남자 이상이거나 남자 이하라는 성차별적인 모습<sup>15)</sup>으로 재현한다.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는 카프 슬로건과 이데올로기의 과잉으로 결 과된 계급투사형의 관념적 이상적 여성상과, 부정적이고 왜곡된 아내상, 진 정한 지식인으로서보다는 자본주의적 소비와 병폐의 표상으로 외양만을 갖 춘 사이비 신여성 등이다.

첫째 유형은 초기소설에서 나타나는데 비현실적이고 이중의식으로 그려 진 여성의 이미지는 ‘여성의 억압적 상황과 노동현실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나 인식도 없’ 이 묘사되었다는 변정화<sup>16)</sup>에 의해 비판된 바 있다. 목적의식의 여성입신담 소설에서의 전사, 투사의 모습은 「고향」(조선일보, 33.11.15 ~34.9.21)이나 「신개지」(동아일보, 38.1.19~9.8)의 인물유형에서도 계속 해서 등장하고 있다. 「민며느리」(조선지광, 27.6)의 금순과 「해후」(조선지 광, 27.11)의 S, 「시대의 진보」(조선지광, 31.2)의 혜숙, 「고향」의 갑숙, 「신개 지」의 월숙 등이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투사적 여성상이다.

「민며느리」에서 7살에 민며느리로 시집간 금순은 남편과 시부모의 폭력 을 이겨내고 봉건가정에서 탈출해서 제사공장에 취직한 후 무산계급전선의 투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해후」의 전화교환수 S는 카페여급 생활을 하면서 성적 대상으로 여성을 보는 남성사회를 접하며 여자청년회 간부로 성장한 다. 「시대의 진보」의 혜숙도 방적공장에 취직하면서 조합활동을 하는 등 근 건한 투사로 변모한다. 이 세 작품에서 ‘허위의식을 벗고 스스로 서는 여성 상을 창조하려는 작가의 의도는 발전적이나 구체성의 결여로 실패’<sup>17)</sup>하였다 는 평가처럼 계급해방=여성해방이라는 목적의식이 앞서 형상성의 미숙함

15) 메리 앤 피커슨편 · 김종갑편역, 『문학속의 여인들-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 (여성사, 1995) pp.12~14.

16) 변정화, op.cit., p.151.

17) 이선옥, op.cit., p.230.

을 드러내고 있다. 즉 남성주인공의 주체형성 과정이 리얼리티를 얻고 있는데 반해 급작스럽고 부자연스런 여성의 경우 여성의 심리나 행동묘사의 안이함이 드러난다.

「고향」의 갑숙이는 이상화시킨 가공적 인물로 권상철의 가짜 아들인 경호와 관계를 맺고 아버지인 안승학이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하자 가출하여 옥희라는 가명으로 공장에 취직을 한다. 지배계급의 자제였던 옥희는 여공이 되자 각성된 의식을 노동자들에게 주입하며 소작쟁의 과정에서 그녀의 연애사건으로 안승학을 협박함으로써 해결한다. 갑숙이의 출가가 너무 돌발적이고 기본적이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작위적 인물로 관념화되고 있다.

「신개지」에서는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세 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이 소설도 「고향」의 문제적 개인 '김희준'을 중심으로 사건들이 전개되듯 옥살이와 귀향 이후 의식의 자각을 보인 '강운수'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갑옥에서 나오자마자 운수는 순남을 찾아가고 부모에 의해 팔려가 기생 금향이 된 옛 애인의 불행에 대해 연민과 동정을 보인다. 시대의 희생양인 그녀는 적극적이고 사랑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여성이다. 이들 사이에 하감역의 손녀로 천성이 영민하고 매사에 비판안을 가진 신여성 월숙이 등장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악한 현실에 분노하는 자각적인 여성으로 「고향」의 안갑숙의 또다른 모습인 이상화된 가공적 인물이다. 작가는 그녀를 통해 견고한 인습의 굴레와 윤리적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보인다. 그리고 하감역의 둘째 아들 상철의 아내인 숙근은 카페여급과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편과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도 정조관념이 전부인 구식여인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만 자신의 불행이 불합리한 결혼 때문이라고 막연하게 자각하는 봉건적인 여성상이다. 작가는 「신개지」를 통해 '理想化된 新女性'에 하월숙을, '無知한 農村婦子의 混雜한 生活 속에 呻吟하는 舊女性'에는 유숙근을, '이 두 女性의 特長인 肉體와 敎養과 理想과 女性을 融合하여 渾然한 一個 理想型의 典型的인 女性'<sup>100</sup>으로 금향을 창조하려고 했지만 여성을 이상화하

고 여성이 처한 현실을 피상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작가의 의도와 간극을 보인다.

다음으로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여인상은 신여성과 아내이다. 신여성이란 신교육을 받은 지식여성으로 구여성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신교육으로 획득한 자아각성을 기반으로 가부장제적 도덕규범에 도전하여 여성의 성적인 해방을 주장한 여성<sup>18)</sup>을 말한다. 1930년대 중후반기에 등장하는 신여성은 진정한 내적 자각이 이뤄지지 않은 허위욕망으로서의 사이비 신여성으로 트레머리(더펄머리)나 굽높은 구두 등 외양만 가꾸고 돈을 최고가치로 여기며 소비적 삶을 추구하는 성적 물질적 욕망이 강한 모던 걸, 양장미인이다.

『유한부인』(사해공론, 36.7)에서의 혜원은 학교교육을 받아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음악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양장이 어울리는 아름다운 여성이다. 그녀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과 지위와 명예와 건강이 보장된 교부주임이자 수학자인 남자와 결혼한다. 그녀는 결혼을 하나의 생활방편으로 여기고 남편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신분상승을 이루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선택하는데 이는 각성한 여성이 선택한 결혼관이 아니라 금전과 지위와 안락한 삶에 예속하려는 왜곡된 결혼관에 불과하다. 전형기의 신여성들이 부정적으로 묘사<sup>19)</sup>되고 있는 것은 여성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로도 남성중심사회에서는 거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가족제도 하에서는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자유와 개인적인 욕구의 표현을 억압하며 그것을 죄악<sup>20)</sup>으로 보았고 신여성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성적으로 방종하거나 물질만능에 빠져 있거나 허영과 질투로 충만된 이미지만을 부각시키는 남성작가의 욕망을 전유하려는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18) 이기영, 「동경하는 여주인공」(조광, 1939.4) p.152.

19) 오숙희, 「한국여성운동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참조.

20) 이에 대한 연구로는 줄고, 「일제 전형기 소설의 반페미니즘과 여성의 현실」, 『월북작가소설연구』(깊은샘, 1999) pp.374~378을 참조 할 것.

21) 이효재, 『여성과 사회』(정우사, 1979) p.57.



「변절자의 안해」(신계단, 33,5)<sup>22)</sup>에서의 민족씨의 아내인 함희정은 '눈이 부시는 흰양복에 분홍색 파라솔을 받고 뒷굽 높은 뒷독한 흰구두를 신고 비단양말 위로 뚱근뚱한 장딴지를 드러내노코 가웃동거리며' 다니는 모던 걸이다. 그녀는 행낭어멈조차도 반반한 여자를 고르고 구식여성인 전처를 쫓아버리며 지식인 남편의 사상과 운동을 '장미꽃 같은 키스'로 막으면서도 민족씨의 아들은 잡지사 주간인 피개량을 닮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다. 탈성애화되지 않으며 정절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신여성 아내 역시 철저히 부정되고 위선적으로 그려진다. 「생활의 윤리」(성문당, 1942)의 일찌는 이혼할 것이라는 박달의 꼬임에 넘어가 인생을 망치는 신여성으로, 「인간수업」(조선중앙일보, 36.1.1~7.23)의 아내 순복이도 남편의 뜻을 저버리고 안락한 생활을 쫓는 위선적인 신여성 아내로 왜곡되어 나타난다.

이기영 소설의 부정적인 아내상은 주로 전향<sup>23)</sup> 이후의 소설에 나타난다. 1934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카프맹원 80여명이 검거된 전주사건으로 대다수의 프로문인과 동반작가들이 전향하게 되었는데 '1937년 이후에도 변절하지 않은 사람은 극히 드물 정도'<sup>24)</sup>였고 맑시즘의 퇴조 이후 한국 지식인의 회귀할 곳을 더욱 어렵게 했다. '조선의 지식계급은 이중의 고뇌뿐만 아니

22) 이 소설은 이광수의 「혁명가의 아내」(동아일보, 1930)의 '공산' 씨에 빗대어 '민족' 씨의 실력양성론과 자유연애사상을 냉소적으로 그린 것이다. 이기영은 '일련의 맑스주의자 사실은 알부랑자 변태성욕자 음남음녀인 사이비 혁명가의 추악한 행동을 독자대중에게 폭로하는 이간책을 쓰고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타락한 소부르주아 생활의 용렬한 자기화상을 그럴뿐'이라고 이광수를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기영, 「〈혁명가의 아내〉와 이광수」(신계단, 1933, 4)- 그러나 이기영과 이광수는 서로 신여성 아내로 빗대어 공격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대상화된 타자, 욕망의 대상으로 여성을 보는 남성중심적 시각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

23) 전향(轉向)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은 사상의 변화'라고 정의되며 '변절', '굴복', '반성' 따위의 어감이 좋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말 대신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서준식, 「전향 무엇이 문제인가」(역사비평 제22호 1993. 가을) pp.18~19.

24) 김치수, 『식민지시대의 문학연구』(깊은샘, 1980) p.28.

라 실로 삼중 사중의 고민에 허덕'<sup>25)</sup>이고 있다는 회월의 지적처럼 '생활고에 당면한 세속적 인간'<sup>26)</sup>이 출현하는 전향소설<sup>27)</sup>이 등장하게 된다.

「수석」(조광, 39.3)의 아내는 남편을 취직시키기 위해 이미 처세주의자가 된 옛동지 박군과 공모하여 나를 고리대금업자로 만든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장 경멸했던 내게 아내는 '당신 주제에 직업을 가릴 건덕지가 뭐 있수. 아무게나 닥치는 대루 하는 게지. 개백정질이 아닌 답앤'이라며 비아냥거리고 이죽거린다. 현실에 순응하여 직업을 갖게 되자 아내는 갑자기 달라지면서 싹싹해지고 다정해진다. 나는 황금의 신에 씌어서 그리 된 것이라며 황금만능주의자이자 속물근성이 다분한 경박하고 변덕스러운 여자로 아내를 여기고 있다.

「적막」(조광, 36.7)의 명호도 옥살이 이후 타락한 친구의 전향한 모습에 실망하고 아내의 샷바느질에 의존하면서도 순수한 정신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예술적 자부심을 지키며 당장의 생계유지도 못하면서 가족에게 대법한 척 하는 가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설」(조광, 38.5)의 경훈은 오 년만에 감옥을 나왔으나 직업도 얻지 못한 채 여공인 딸의 봉급으로 생활하고 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는 실과장사나 화장품장사, 샷바느질을 하며 가정을 지켰으나 경훈은 나이 많고 무식한 구식여자라고 싫어하며 경박하고 얼어먹는 거나 바라는 불쾌한 여자로 여긴다. 「고물철학」(문장, 39.3)의 궁재가 관찰하는 아내 남희는 세속적이고 천박하지만 전문대학 출신인 자신은 물지계를 지거나 고물상을 하는 순수한 인간형으로 자부하고 있다.

속물주의자, 처세주의자로 묘사된 아내를 부정하는 남편들은 자조적이고

25) 박영희, 「조선지식 계급의 고민과 그 방향」(개벽, 1935.1)

26) 박영희, 「한국현대문학사」(미출판 원고, 18장~20장)

27) 전향소설 연구로는 김윤식, 「사상전향과 전향사상」, 『한국근대문학사상사』(한길사, 1984), 김동환, 「1930년대 한국전향소설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7)를 참조할 것.

무기력하며 방관자적 모습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지킨다는 점 때문에 긍정하고 있다. 남편들은 처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없기에 모멸감과 무능력에 대한 화풀이를 아내에게 해대며 현실도피와 부적응의 자세로 이런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아내를 천박하고 가벼운 마녀형으로 묘사하면서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다. 식민지하라는 시대적 질곡 속에 가정을 지키려고 억척스럽게 사는 아내들은 경망스럽고 지조 없으며 악인, 마녀, 성적 물질적 욕망이 강한 속물로 그려진다. 사상범 보호 관찰법에 의해 끊임없이 관찰되고 보호되는 지식인 남편들은 내적 억압과 울분과 열등감을 지닌 채 '가정 밖에서는 아무런 권력을 가지지 못하자 명백한 권력을 제공하는'<sup>28)</sup> 가정 안에서 아내의 성욕과 경제력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이나 냉대로 억압<sup>29)</sup>한다. 제국주의자들에게 타자화된 식민지 남성들은 자신의 정체성 위기를 또 다른 타자인 여성을 통제함으로써 극복<sup>30)</sup>하고자 한다. 부부간의 역할전도에서 남편은 기껏 글쓰기나 그림창작을 통해 순수한 이념을 지키고자 하며 '식민지에서 해방된 세상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비난되고 부인되어야 할 요소로 등장'<sup>31)</sup>하게 되는 것이다.

작가는 조혼했던 신여성이든 상류층이든 하층민 아내이든 대체로 거부감을 드러내는데 '조혼의 제단에 희생물로 이바지된 어린양과 같은 체험'<sup>32)</sup>이라는 남성입장에서만 표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혼 제도가 여성의 삶에 훨씬 고통스러운 제도였고 일본의 동화주의 정책으로 왜곡된 정체성을 강

28) 한국여성연구회 편역, op.cit., p.32.

29) 이기영의 소설외에도 한철야의 「이녕」(문장, 1939.5), 김남천의 「처를 때리고」(조선문학, 1937.6), 「이런 인해」(농업조선, 1939.4), 이상의 「날개」(조광, 1936.9), 「봉별기」(여성, 1936.12), 현덕의 「남생이」(조선일보, 1938.1~25)에서도 그려진다. 왜소화된 틈판남편의 아내폭행은 경제적 성적으로 자기 민족의 여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존심의 훼손으로 인한 가학적 자세로 볼 수 있다.

30) 전은정, 「일제하 신여성 담론에 관한 분석」(서강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p.37.

31) 최정무, 「한국의 민족주의와 성차별 구조」, 『위험한 여성』(삼인, 2001) p.33.

32) 이기영, 「동경하는 여주인공」(조광, 조광, 1939.4)

요반는 식민지의 룬펜 지식인 남편들에게 핍박받는 여성의 삶의 질곡을 가정 내에서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이기영 소설의 남성 주인공은 여성을 아름답고 신비하게 바라보고 있다. 공장의 투사형 인물조차 '제사공장 속 三美人 중의 한 사람으로 지목을 맞는다' (『민머느리』)거나 '동고소름한 얼굴이 꽤 입뽕장스럽게 생겼다'로 묘사하고 있어 영원한 이상형인 동경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고향」의 김희준이 조혼한 아내를 싫어하고 동네 처녀들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어김없이 그려진다. 농촌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고 농민과 노동자를 매개하여 소작쟁의를 이끄는 선진적 지식인인 그는 '나는 언제까지 못생긴 아내를 데리고 살 의무가 있을까?', '못난 것이 애교를 부리는 셈인가?' 하며 신식여학생에 비해 아내를 송충이 같이 흠척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여성을 대상화된 타자나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계급의식적 자제로 여성의 해방을 주창한 이기영은 모친사별과 조혼같은 '유년시대의 결정적 인상이 창작상에 굳세게 반영'<sup>33)</sup>됨으로써 여성묘사와 여성의 현실에 있어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3. 각성의 계기로 본 남녀 성차

수세기 동안의 서구 역사나 사상을 살펴보면 이항대립질서 속에서 인간 주체 또는 기준으로 전제되는 것은 늘 '남성' 이고 여성은 남성에 종속되거나 남성이란 기준에 대한 '타자' 로 존재하였다. 단 하나의 (남성)주체라는 이데올로기는 '진리' 를 단 하나의 의미로 고정시키려는 시도와 늘 함께 하<sup>34)</sup> 였다. 여자들은 <주체>로 인정될 수 없고 남자들 집단이 소유하는 재산이자 남자들간의 교환도구이며, 따라서 남들과 결코 직접적이고 자주적인 관

33) 이기영, 「창작의 이론과 실제」(동아일보, 38.9~10.4)

34) 팸 모리스·강희원역, 「문학과 페미니즘」(문예출판사, 1997) p.263.

계를 가질 수 없었다.

남자의 특징이나 성격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여자는 모두 이 남성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되고 평가<sup>35)</sup>되기 때문에 자아성찰과 탐색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이라는 세계를 거쳐야 각성단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차는 사회로의 진입과정과 소설구조의 차이로 나타난다. 192,30년대 농민소설의 구조는 가출, 출향, 옥살이와 귀향, 귀농 모티프<sup>36)</sup>로 이뤄지는데 이는 사용가치가 배제되고 교환가치에 의해 지배되는 모순된 사회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문제적 개인<sup>37)</sup>이 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 그런데 자아각성의 계기와 사회의식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목적의식기 소설에서 여주인공들의 가출과 사회의식이 눈떠나가는 동기는 남성과의 실연에서 이루어진다. 「민머느리」의 금순은 나이 많은 남편보다는 동갑의 주인집 아들을 사랑했으나 냉대와 무시를 당하면서부터 결혼생활을 청산하며, 「해후」의 전화교환수인 S는 사회주의자 B를 짝사랑했으나 거절당해 가출하며 카페 여급이 된 후 의식의 자각을 거친 후 여자청년회 간부로 성장하게 된다. 「채색무지개」(조선지광, 28.1)의 옥숙도 정형조에게 사랑을 거절당한 후 의식의 각성을 보이며, 「시대의 진보」의 혜숙은 최선

35) 메리 앤 퍼저스편, op.cit., p.12.

36) 지식인의 귀향 및 귀농 모티프는 조남현,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지식인 귀농모티프」, 『한국현대소설연구』(민음사, 1987), 김윤식·정호웅편, 「문제적 인물의 설정과 그 매개적 의미」,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문화과비평사, 1987), 서경석, 「한국경향소설과 '귀향'의 의미」, 『한국학보』 제48집, (일지사, 1987.가을), 한승옥, 「지식인의 귀농 의미 재고」, 『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민음사, 1989), 김윤식, 「한살아론」, 『한국현대현실주의소설연구』(문화과지성사, 1990) 등을 참조할 것.

37) 이기영 소설은 김윤식, 정호웅의 연구에 의해 문제적 개인과 전망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물유형에는 「민촌」의 서울택, 「쥐이야기」의 광취, 「농부 정도룡」의 정도룡, 「원보」의 석봉, 「조희 뜨는 사람들의」의 샌님, 「부역」의 원식, 치삼, 「홍수」의 박건성, 「서화」의 정광조, 돌쇠, 「고향」의 김희준, 「인간수업」의 현호, 「어머니」의 인숙, 「대지의 아들」의 황건오, 「봄」의 석림, 「땅」의 광바위, 전순옥, 강균, 「두만강」의 이진경, 박곰손, 박씨동 등으로 대부분 남성이다.

생과의 연애 사건 이후 그에게서 계급투쟁과 여성해방에 대한 사상을 받아 드린다.

한국 프롤레타리아 문학 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작품이자 식민지 시대 농민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고향」의 갑숙은 권상철의 가짜 아들인 경호와 관계를 맺고 아버지 안승학이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하자 돌연 가출하여 공장에 취직한 후 노동자들에게 각성된 의식을 주입하는 투사로 변신한다. 「어머니」의 인숙은 유부남이자 색마인 창규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 각성단계를 밟게 되고, 「신개지」의 금향이기도 강윤수와 의 실연과 배신감으로 기생이라는 전망 없는 삶에 자포자기하기보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건강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자아각성은 남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 받는 여성의 현실을 드러내며 자아정체성 획득 과정의 어려움을 알게 한다.

이에 비해 남성들의 각성의 계기는 부분적으로는 조혼 때문이지만 대개는 자의식에서 성장한 **향상심**과 학문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다. 「고향」의 김희준은 동경 유학을 다녀와 귀향한 선진적 지식인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써어 있던 청년회를 재정비하고 야학을 열고 두레를 조직하는 등 민중적이고 바람직한 전위로 묘사되어 소작쟁의를 지도하고 마침내 농민들과 함께 승리를 이끈다. 「신개지」의 강윤수도 검열의 강화로 약화되기는 했지만 살인죄로 3년간 옥살이를 거쳐 귀향하는 지식인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봄」(동아일보, 40.6.11~8.1)의 유선달은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낙향하고 「동천홍」, 「광산촌」(매일신보, 43.9.23~11.43)의 남주자인공들도 **향상심**으로 가출한다. 「두만강」(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4)의 이진경도 시국의 현정세를 살피면서 거사를 위한 동지들을 규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경했으나 2년만에 귀향한다.

각성의 계기로 본 남녀 성차는 곧 이기영의 페미니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강경한 사회주의자로 여성해방을 피력한 바 있지만 '몰락하는 중산적 토반의 아들로서 유교적 **오륜삼강**의 교양을 무던히 신봉'<sup>30)</sup>했던 유년기의 집안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남성작가로는 드물게 여성해방

을 부르짖었던 '땀스주의를 신봉한 일 학도'<sup>38)</sup>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형상화에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자아각성을 통한 투사로의 전환은 사랑의 실패가 계기가 되고 있고 문제적 개인이 남성인 경우 귀향, 귀농 이후의 주요한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여성인 경우 도시로 진출한 후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녀들은 순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났고 환향녀(還鄉女 혹은 화냥년)라는 용어는 유교 남성 지배자의 언어인 한자로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이라는 의미인데, 외세 지배의 역사와 동질적인 민족이라는 관념에 담긴 여성 혐오 논리에 희생된 한국 여성의 지위를 반영<sup>40)</sup>하고 있다. 순결 지키기에 혼육되어옴으로써 남성에 지배되고 속박된 여성의 그후의 행적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가부장제 유교 이념의 질서에 벗어나지 못한 결과이다. 작가는 여성을 남성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했고 경제적 독립이라는 발전적 양상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신체를 더럽혀지지 않고 유린당하지 않은 남성 중심적 민족의 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데뷔작인 「오빠의 비밀편지」(개벽, 24.7)에서 막연하나마 남성의 허위와 모순을 여성의 시각에서 비판하였고 동경유학생과의 연애갈등과 친구의 사상충돌을 통해 선희라는 여주인공의 운명을 그린 「死의 影에 飛하는 白鷺群」(미발표 원고)에서도 여성문제를 다루는 등 창작 초기부터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식민지 농촌 현실 묘사와는 달리 여성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데 실패한다. 또한 남성의 종속에서 벗어나<sup>41)</sup> 카페 여급, 기생, 여공이 되어 경제적으로 자립하거나 「고향」의 인순, 「신개지」의 금향, 「어머

38) 박승극, 「이기영 검토1」(풍림, 1937.5), p.11.

39) *ibid.*

40) 최정무, *op.cit.*, p.29.

41) 이러한 설정은 '여성해방의 첫 번째 전제는 전여성이 공공의 산업에 재투입되는 것'이라는 앵겔스의 교의를 따른 것으로 여성억압과 종속상태를 분석하지 못함으로서 한계를 보인다. -아네트 쿤외·강선미역, 『여성과 생산양식』(한겨레, 1978) p.167에서 재인용

니」(조선일보, 37.3.30~10.1)의 인숙, 「동천홍」(춘추, 42.2~43.3)의 금남, 「생활의 윤리」의 석용주, 「땅」(민주조선, 1947)의 전순옥, 금숙 등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여성상을 현실감 있게 창조하고 있지만 작품 속에 할애되는 비중이 작으며 식민지 무산계급 여성인 타자의 진정한 재현이 남성작가에게는 쉽지 않음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이 남성의 자아각성은 **향상심**에서 비롯되지만 여성의 주체형성 과정은 연애의 실패나 남성과의 관계에서 이뤄진다. 또한 남자가 문제적 개인일 땐 가출과 귀향 구조를 지니는 반면 여성의 경우 대개는 가출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는 남성의 경우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야학, 소작쟁의, 노동 제휴 등의 대사회적 운동은 긍정적인 반면 여성의 삶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성차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남성들이 자발적으로 각성하는데 비해 여성의 경우 남성진보주의자들 혹은 지식인에 의해 교육받고 의식화되어간다. 즉 여자들은 자연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교육받지 못한 성적 의존적 존재이자 남성들에 의해 배워야하는 욕망의 대상으로 정조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4. 매매혼·심청 모티프로 본 여성의 위치

젠더, 민족, 계급이라는 삼중 억압 속에 고통받는 한국여성들의 열악한 위치는 매매혼이나 심청 모티프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매매혼, 정약혼, 조혼같은 봉건적 결혼제도는 한국의 경제구조와 농민생활상과 관련되는데 딸을 둔 가난한 집에서는 일할 수 없는 어린 딸을 민머느리로 보내고 일꾼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릴사위를 구하며 반대로 며느리를 얻는 집에서는 아들이 어릴수록 과년한 처녀를 데려와야 일을 부릴 수 있고 아이를 일찍 낳 수 있다. 여자에게는 조혼이 가난 때문인데 남자는 가난할수록 만혼이 된다. 봉건결혼제도의 폐습은 식민지의 궁핍한 사회경제구조와 맞물려 있어 이러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변화될 수 없으며 민며느리로 들어간 나이 어린 여성들은 육체노동과 시부모와의 갈등, 성적 부담으로 자살, 방화, 남편 살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여성의 희생적 행위는 192,30년대 소설의 보편적 소재로 김동인의 「감자」(조선문단, 25.1)나 나도향의 「뽕」(개벽, 25.12), 김유정의 「소낙비」(조선일보 신춘문예, 1935) 에서도 여성을 생계수단을 위한 방편으로 설정되어 있다. 농민들의 유일한 삶의 터전인 땅을 총독부와 그들과 결탁한 소수의 지주들에게 빼앗긴 채 먹고사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딸을 팔아먹거나 아내의 마음을 묵인하며 목숨을 연명하였다. 특히 곱게 키운 딸을 쌀 섬과 교환하거나 빛 때문에 채무첩으로 빼앗기게 되는 경우, 돈 많은 사위를 얻기 위해 첩으로 시집 보내는 경우, 딸자식을 계속 낳아 돈으로 파는 경우, 기생이나 공장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이기영의 장, 단편에 등장하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 인권 침해를 가부장제하에서 남성간에 벌어지는 재산권 싸움으로 환원<sup>42)</sup>하는 가부장제 패러다임의 결과이다.

「민촌」(문예운동, 26.5)의 점순이는 병든 애비를 대신하여 집안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박주사 아들의 첩으로 팔려가며 「농부 정도룡」(개벽, 26.1~2)의 용쇠는 가난을 못 견뎌서 딸자식을 둘이나 팔아먹고 셋째딸조차도 삼백냥에 팔아 넘긴다. 「어머니의 마음」(현대평론, 27.1)에서 영아를 일본인에게 주며, 「민며느리」에서는 악덕 고리대의 채무첩으로 넘기며, 「아사」(조선지광, 27.2)에서는 장릿벼 한 섬으로 딸을 팔아먹는다.

「신개지」에서 순남이는 부모의 청에 못이겨 기생으로 팔려가면서 인생 역정이 시작되고, 「동천홍」에서 금남이는 술집으로 돈 이백 원에 팔려가나 일훈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오지만 아버지가 그녀를 첩으로 시집보내려고 하자 또다시 기생이 된다. 「생활의 윤리」에서도 부잣집 후실로 시집보내려

42) 우에노 치즈코·이선익, 『내셔널리즘과 젠더』(박종철출판사, 1999) p.103.

고 하자 웅주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갖은 고초를 겪는다. 「땅」에서의 전순옥은 채무점으로 치욕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자살을 기도하는가 하면, 광바위의 누이도 돈 삼백 원에 제사공장의 여직공으로 팔려가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며 「두만강」의 곱단이는 술집에 팔려가 여자로서 못할 짓을 하는 고통스런 나날을 보낸다.

물론 「홍수」(조선일보, 30.8.21~9.3)의 건성, 삼룡이가 방적공장에 가고 노동시장에 아들을 판돈으로 모친의 병을 고치는 등 소년들의 매매도 엿보이고 「민촌」과「아사」의 김침지처럼 딸을 판 아버지들이 미치거나 비판하여 죽기도 하지만 여성을 물건 취급하거나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함을 인식할 수 있다.

심청 모티프 설정은 열악한 외적 상황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필종부, 남존여비 관념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여성을 물건이나 식량과의 교환가치로 생각하는 남성 권력의 결속과 무관하지 않다. 매매혼이나 심청 모티프를 통해 작가는 사회구조적 모순이 야기한 빈궁의 문제와 봉건적 가족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해결의지나 전망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여성들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결정권이 아버지나 남편 등 가부장권에 속하고 있어 열악한 여성의 위치를 알게 한다.

## 5. 마무리

본고는 식민지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가의 한 사람인 이기영 문학에 페미니즘 관점으로 분석해 보았다.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의 문학관을 지닌 작가는 성장기의 가부장제 유교 이념의 봉건 가정에서 자라난 탓에 작품 속에 혼효되는 양상을 보였다.

첫 번째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묘사된 이상화된 여성을 살펴보았는데 비현실적인 여성묘사는 어머니와의 이혼 사별과 어린 시절에 겪은 조혼의 아

픈 경험의 결과이며 투사적 계급형 인물들은 작가가 고통받는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만 주입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부부간의 역할전도로 무기력한 남편들은 경제력을 담당하는 아내들을 경멸하며 무시하거나 폭행하는 자세를 취한다. 이는 아내를 밖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남성의 무능력의 결과로 식민지하 가정을 지키지 못한 자기혐오와 자기부정으로 아내의 경제적 능력을 비난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내들은 한결같이 이기적이거나 위선적이며 속물주의자, 처세주의자, 성욕 물질욕이 강한 현실주의자로 비판되고 있다. 소설 속의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 신비화된 미인들로 성적 대상이나 동경의 대상으로 비취지고 있다.

각성의 계기로 본 남녀 성차에서는 여성의 주체획득 과정이 남성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주시한 부분이다. 여성의 자아각성을 위해서는 남성이라는 세계를 한번 더 거치게 되는데, 남성의 문제적 개인의 과정이 자발적인 향상심이나 내적 고뇌의 결과라면 여성들은 대부분 실연 이후에 나타나며 의식화 과정에서도 남성 지식인이 개입되어 있다. 또한 남성 주인공은 문제적 개인이 되기 위해 가출한 후 몇 년 뒤 귀향, 귀농하여 고향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비해 여성 주인공인 경우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 공사이분법의 경계를 탈피하지 못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여전히 여성은 의존적이고 남성에 의해 훈육되거나 교화되어야 할 대상임을 암시하며 정절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성중심적 시각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젠더, 민족, 계급의 삼중 억압을 받는 한국여성들의 열악한 위치가 매매혼, 심청 모티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섹슈얼리티의 자기결정권을 갖지 못함으로써 여성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버지나 남편 등 가부장에 의해 예속되고 남성의 재산으로 여성이 공유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기영 문학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남성작가의 한계일 것이다. 더욱이 작가는 여성해방을 부르짖었던 페미니스트였지만 가부장제

유교 이념의 통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의 페미니즘 소설의 허와 실을 남겼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반봉건반제의 자세로 마르크시즘과 여성해방의 문학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봉건 집안의 가부장제 분위기에서 자란 유년기의 결정적 인상이 작가의 의식 안에서 팽팽하게 길항하고 있고, 젠더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급해방에만 초점을 맞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한계로 식민지하 여성현실의 총체적 반영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꾸준히 천착한 여성문제는 유의미하며 이기영의 '여성해방' 소설 속의 난제들이 현재의 남성작가에게서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문제로 남아있다.

■ 필자 : 원주대 교수

〈참고문헌〉

- 이기영,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태학사, 1988.
- 이기영, 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 태학사, 1988.
- 이기영, 동경하는 여주인공, 조광, 1939.4.
- 이기영, 창작방법문제에 관하여, 동아일보, 1934.5.30~6.4.
- 이기영, 부인의 문학적 지위, 근우, 1929.5.
- 박승국, 이기영 검토1, 풍림, 1937.5.
- 박영희, 조선지식 계급의 고민과 그 방향, 개벽, 1935.1.
- 강상중, 이경덕외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 변정화, 이기영의 작품과 여성해방의 문제, 어문논집 제1집, 숙명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91.2.
- 서정자, 한국근대여성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9.
- 신영숙, 일제하 한국여성사회사 연구,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 오숙희, 한국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 이미림, 월북작가소설연구, 깊은샘, 1999.
- 이상경, 이기영 시대와 문학, 풀빛, 1994.
- 이선옥, 이기영 소설의 여성의식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5.
- 이효재, 여성과 사회, 정우사, 1979.
- 전은정, 일제하 신여성 담론에 관한 분석, 서강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채훈외, 월북작가에 대한 재인식, 깊은샘, 1995.
- 미셸 바렛외, 신현옥외 편역,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 여성사, 1995.
- 아네트 쿤외, 강선미역, 여성과 생산양식, 한겨레, 1978.
- 우에노 치즈코, 이승희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출판사, 1999.
- 일레인김 외 편저, 박은미역,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레슬리 피들러,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90.

사라 밀즈, 김부용역, 담론, 인간사랑, 2001.

팸 모리스 강희원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메리 앤 퍼거슨편, 김종갑편역, 문학 속의 여인들, 여성사, 1995.

한국여성연구회 편역, 여성해방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90.

Abstract

Study on Feminism in Giyeong I's Works

Lee Mi-rim

This article has analyzed literature of Giyeong I, one of the renowned writers in the colonial period in view of feminism. The writer who had literary view of Marxism and women's liberation revealed confused aspects due to his growth in a feudalistic family of patriarchal confucianism.

First, seeing the idealized aspect of woman described in male oriented view, it is as a result of early separation by death of his mother and heart broken experience from early marriage in his childhood. The classified characters described such as warrior and fighter is the result that the writer has just infused ideology without proper understanding on the reality of women in agony. Also, all the wives in his works described as selfish or hypocritical and completely materialistic person, opportunist, and realist with strong sexual and material desire while the women in his novels are referred to as beautiful and mystified sexual objects.

In the sexual difference of man and woman with the view of awakening, it is noticeable part that there is difference in the process of recovering subjectivity for a woman from that for a man. A woman became to undergo the world of man in order to achieve self-awakening and if a man's personal process of problem is to say as a result of aspiration for self-improvement or internal suffering, most of women appeared to have self-awakening after suffering from broken heart with a man and even a

man intellectual is related in the process of self-consciousness. Also the hero became to run away from home to be an individual of trouble and return home and to the farm after a few years. Then he solve difficulties in his hometown. But on the other hand, most of heroines do not return to their home and break from the border of the dichotomy of public and private. Such factors indicate that still woman is the object dependent and to be trained and enlightened by man and it is because the writer sticks the man initiative view not getting out of fidelity ideology.

Finally, the inferior position of Korean women in colonial period is frankly revealed in the motive of purchase marriage and Simcheong under the triple suppression of gender, people and class. It displays the reality that woman does not establish identity of herself due to failure to acquire decision making authority on sexuality, be under control by the head of family such as father or husband and shared as property of man.

Though the writer had the literary view of Marxism and women's liberation with the attitude of anti-feudalism and anti-imperialism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he left contradictory world of his works with the limit of Marxist feminism focused on liberation of the class without awareness on characteristics of gender. Because his growth process under the feudalistic patriarchal family contended tightly with his literary view and his works. However, the issue on woman continuously pursued in his literature has considerable meaning and it is left as the matter of today in the fact that his weak point still reappears in the works of male writers today.